http://dx.doi.org/10.52723/JKL.47.103
『국문학연구』 제47호, 국문학회, 2023, 103~124면.

신자료 백영본 『기사주(記事珠)』에 대하여
- 소설어록해와 『동국명산동천주해기』 수록 양상을 중심으로 -

정솔미*

Ⅰ. 서론
Ⅱ. 『기사주』의 서지적 특징
Ⅲ. 『기사주』의 내용과 문헌적 가치
Ⅳ.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신자료 백영본 『기사주(記事珠)』의 문헌적 가치와 함께 서지사항과 수록작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 백영본 『기사주』는 다양한 관심과 취미를 가졌던 19세기 문인이 고금의 여러 문헌들을 두루 참조하여 서적 목록이나 작품, 또는 글귀나 정보 등을 짤막하게 간추려 한문으로 필사한 책이다.

이 책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중국의 사(詞) ② 『강한집』 소재 기록 ③ 생활・양생(養生) 관련 잡다한 정보 ④ 조선 문인의 신기(新奇)한 산문 ⑤ 역사・제사・법률 관련 잡다한 정보.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③과 ④ 부분이다.

③에는 '일개심쾌초록'(一開心快抄錄)이라는 제목 아래 소설어록해(小說語錄解)가 일부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소설어록해를 확장적으로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현전하는 소설어록해는 『서유기(西遊記)』・『수호전(水滸傳)』・『서상기(西廂記)』를 중심으로 삼은 데 비해, 여기 실린 어록해는 주로 『금병매(金瓶梅)』를 출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중국어 음가(音價)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어 소설어록해가 향유된 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www.kci.go.kr

채로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에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의 본문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동국명산동천주해기』는 남극관(南克寬)이 허균(許筠)의 저작으로 지목한바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 지금까지 『와유록(臥遊錄)』에 그 서문(序文)이나 후지(後志)만 전한다고 알려져 있어 자료의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 본문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이는 자국산수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도가적인 인식틀 속에서 조선의 지리를 재편하고자 한 지리지적(地理志的) 요소를 가진 글임이 확인되었다. 추후 『기사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핵심어: 백영본 『기사주(記事珠)』, 소설어록해, 『금병매』, 『동국명산동천주해기』, 도가적 글쓰기

Ⅰ. 서론

본고는 신자료 백영본 『기사주(記事珠)』의 문헌적 가치와 함께 서지사항과 수록작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것이다.[1] 이 책의 제목인 "기사주"는 기억을 되살리는 능력을 지닌 구슬을 칭하는데, 중국 당(唐)나라 재상 장열(張說)이 어느 사람에게 받고서 간직했다는 고사가 전한다.[2] 문인들은 종종 이 고사를 취해 책 제목을 붙였다.[3]

그런데 '기사주' 고사를 취하여 제목을 붙인 책이 모두 동일한 체재나 성

1) 백영본 『기사주』는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학성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

2) 당(唐)나라 때 재상 장열(張說)에게 어느 사람이 감색 구슬을 주며 그 이름을 '기사주'(記事珠)라 하였다. 그 구슬을 손으로 굴리면 정신이 맑아져 기억나지 않는 일이 생각났다고 한다("開元中張說爲宰相, 有人惠說二珠, 紺色有光, 名曰記事珠. 或有闕忘之事, 則以手持弄此珠, 便覺心神開悟, 事無巨細, 渙然明曉, 一無所忘. 說祕而至寶也.") 王仁裕, 『開元天寶遺事・記事珠』.

3) 당나라 풍지(馮贄)의 『기사주』가 유명하다. 이 고사를 취하여 다른 제목을 붙인 경우도 있는데, 주비승(朱非勝, 1082~1144)의 『감주집(紺珠集)』과 왕응린(王應麟, 1123~1296)의 『소학감주(小學紺珠)』, 그리고 청(淸)나라 때 간행된 작자미상의 『감주집(紺珠集)』을 그 예시로 들 수 있다. 조선의 자료로는 서형수(徐瀅修, 1749~1824)의 『벽감주(碧紺珠)』와 작자미상의 『기사주』 여러 편이 확인된다.

www.kci.go.kr

격을 지닌 것은 아니다. 일정한 체계가 있는 유서(類書)나[4] 특정한 주제에 대해 날짜별로 기록한 책들이 있는가 하면,[5] 필사자가 인상 깊게 읽은 글을 일정한 분류 체계 없이 잡박하게 기록한 책도 있다.[6] 백영본『기사주』는 마지막 사례에 해당한다. 즉, 백영본『기사주』는 고금의 여러 문헌들을 두루 참조하여 서적 목록이나 시와 산문 작품, 또는 글귀나 정보 등을 짤막하게 간추려 한문으로 기록한 것이다.

필사본 1책으로서 참고한 문헌의 범위는『소동파문집(蘇東坡文集)』과 같은 중국의 시문집과『금병매(金瓶梅)』와 같은 백화소설에서부터『열하일기』(熱河日記)와 같은 조선 문헌, 그리고 불가와 도가의 책까지 광범한데, 특히 19세기 백화소설의 독서양상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점, 그리고 그간 일실된 것으로 여겨졌던『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의 본문이 일부 기록된 점에서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다.[7] 이에 이 책의 서지적 특징과 중요한 대목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학계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Ⅱ. 서지적 특징

1. 형태적 특징

백영본『기사주』[8]의 표제는 "記事珠"이며 내제는 따로 없다. 오침철장

4) 서형수의『기사주』는 유서에 해당한다. 서형수에『기사주』에 대해서는 장종미의「徐瀅修의『碧紺珠』에 대한 서지적 연구」(『한국한문학연구』 78, 한국한문학회, 2020) 참조.

5) 연세대학교 소장본『기사주』는 순조(純祖)가 세자였던 당시 그에 관련된 일들을 기록한 것이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기사주』는 어느 지방관청에서 처리한 공무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6) 현재 한옥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자 미상『기사주』에는 박지원(朴趾源)의『열하일기』(熱河日記)의 일부와 청나라 노원창(盧元昌)의『고사성어고』(故事成語考)가 일부 실려 있다.

7)『동국명산동천주해기』는 지금까지『와유록』(臥遊錄)에 그 서문(序文)이나 후지(後志)만 전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백영본『기사주』에서 자료의 실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도가적인 유기(游記)'로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다고 그 내용이 주목된 바 있으며(이종묵,「유산의 풍속과 유기류(遊記類)의 전통 -장서각본(藏書閣本)『와유록(臥遊錄)』과 규장각본(奎章閣本)『와유록(臥遊錄)』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404),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이 허균(許筠)의 작이라고 말한바 그 작가에 주목한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다(정민,「許筠의『東國名山洞天註解記』와 도교문화사적 의미」,『도교문화연구』 14, 한국도교문화학회, 2000).

8) 이하『기사주』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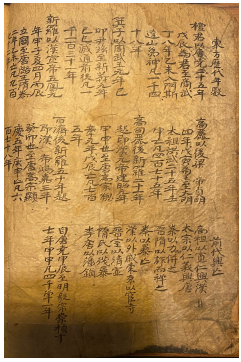
www.kci.go.kr

법으로 엮었으며 크기는 17.0㎝×25.0㎝이다. 강희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본 『사기(史記)』「한흥이래제후연표(漢興以來諸侯年表)」 제5권에서 제7권까지의 공란이나 이면(裡面)을 활용해 필사한 책으로서 표지에는 능화문(菱花文)이 뚜렷하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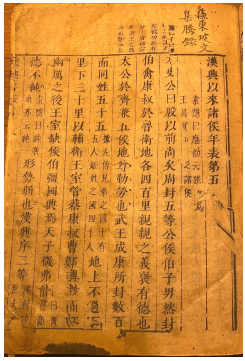
또한, 중국본 『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면에는 조선의 종이를 덧대고 또 그 뒤로 조선 종이 10면을 추가하여 본래의 『사기』 책과 합철하였다. 그 결과 총 필사면은 200면에 달하는데, 각 면에 기록한 행이나 글자수는 일정치 않다.

목차는 따로 없고, 표지 바로 다음 면에 "동방역대연수(東方歷代年數)"[10]와 "전대흥망(前代興亡)"[11]을 간략하게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책이 시작되는 첫 면의 상단에 "소동파문집등록(蘇東坡文集謄錄)"이라 하였는데, 그 뒤로 소동파는 물론 장선(張先)과 육유(陸游)를 비롯한 송(宋) 나라 시인들의 사(詞)가 필사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혹 작품 제목과 작자를 둘 다 표기하기도, 혹 작품 제목만 표기하기도, 혹 아무런 제목을 달지 않기도 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기록하였다.

<그림 1: 표지>



<그림 2: 표지 뒷면>



<그림 3: 책의 첫 페이지>

9) 이 책이 강희 연간 전후로 편찬된 『사기』라는 사실은 성균관대학교 김영진 교수께 자문을 얻어 파악할 수 있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료를 보아주심에 감사드린다.

10) 단군(檀君)을 시작으로 하여 기자(箕子)·신라·고려·고구려·백제의 흥망과 지속기간을 짤막하게 기록하였다.

11) 중국 한(漢) 나라에서 당(唐) 나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www.kci.go.kr

2. 필사자와 필사 시기

『기사주』의 필사자는 그 자신에 대한 정보를 따로 남기지 않았다. 또, 필사한 작품을 보면 오광운(吳光運, 1689~1745)・황경원(黃景源, 1709~1787)・신광수(申光洙, 1712~1775)・박지원(朴趾源, 1737~1805)・김시화(金時和, 1757~1835)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의 작품을 수록한바 특별히 그 교유 관계를 짐작할 단서도 없다.

다만, 그 소장 서적 목록이라 짐작되는 대목을 통해 그 필사 시기 및 지향이 약간 짐작된다. 『기사주』에서 한지(韓紙)를 덧댄 부분에는 <그림 4>와 같이 필사자가 소장했던 것으로 짐작되는 서적 목록이 적혀 있다.[12] 조선 서적의 경우 작가의 당파나 지향에 따라 묶어서 기록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중 남인소북계를 다룬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 "약산(藥山)・국포(菊圃)・연초재(燕超齋)・모헌(慕軒)・신절재(愼節齋)・현계(玄溪)・취송(醉松)・하정(河亭)"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현계집』은 현전하지 않는, 약산 오광운의 요절한 장남 오대관(吳大觀, 1711~1734)의 문집인바 집안에 있던 약간의 글을 모아 펴낸 것이라 여겨져,[13] 필사자가 특별히 이들과 관련된 서적

12) 『기사주』에는 서적 목록이 세 차례에 걸쳐 나온다. 하나는 『사기』「연표」를 활용한 부분에 10면에 걸쳐 경사자집(經史子集) 및 소설로 분류되어 실려 있는데 그 목록이 매우 방대하여 필사자가 소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나머지 하나가 『사기』「연표」 부분이 끝나는 곳에 한지(韓紙)로 덧댄 부분에 실려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책의 권수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아 본인이 소장한 서적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그림 4>와 같이, 필사자는 상단에는 중국의 시집을 적고 그 아래는 해당 시집이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적었다. 예컨대 『古詩』는 2권, 『陶詩』는 1권, 『唐古』는 1권이다. 또한, 그 하단에 보면 "간재칠절"(簡齋七節)이라 되어 있고 그 옆에 오절(五絶)・오율(五律)・칠율(七律)을 적은 뒤 하나로 합하여 '일권'(一券)이라 한 것으로 보아 송(宋)나라 진여의(陳與義)의 칠절・오절・오율・칠율(七律)을 합하여 한 권으로 만들었던 게 아닌가 추정된다. 끝으로, 『기사주』의 마지막 부분에는 필사자의 독서 계획이 적혀 있다. 필사자는 '문장개척'(文章開拓)이라는 제목 하에 유교 경전이나 시집(詩集)의 제목을 적고 그 아래 '千'・'三百'과 같이 몇 회 읽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당 면의 아래는 '15년을 기한으로 삼는다'[限十五年]고 기록해 두었다.

13) 오대관은 1732년 22세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병조 좌랑에 이르렀으나, 2년 뒤인 24세에 병으로 요절하였다. 『현계집』의 존재는 『모헌집』의 「오 좌랑 만사」에서 '적막 현계집'[寂寞玄溪集]이라는 구절로 언급되는데, 해당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寂寞玄溪集, 芳春麝草香." 姜必愼, 『慕軒集』 2, 「挽吳佐郞」 한편, 이덕수(李德壽, 1673~1744)가 쓴 「병조좌랑오군묘지명(兵曹佐郞吳君墓誌銘)」을 보면 오대관의 글을 수습한 분량은 그리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爲文操紙筆, 頃刻累千言, 其詩文多散逸不收, 所得若干篇藏於家." 李德壽, 『西堂先生集』, 388면.

www.kci.go.kr

을 두루 열람한 흔적이 발견된다.14)

한편, 필사 시기는 19세기 초중반 이후로 대략 짐작해볼 수 있다. 상기한바 서적 목록 가운데 취송 이희사(李羲師, 1728~1811)의 책이 확인되는데, 이희사는 몰년이 1811년이므로 필사자가 19세기 이후 사람임이 확인되는 것이다.15)

<그림 4: 「서적 목록」>

더욱이 『기사주』에는 김시화의 작품이 실려있다고 했는데, 그 제목은 '상토북천조(相土北遷詔)'로서 이는 그가 1825년 평안도 위원(渭原) 군수로 부임할 때 지은 「동파문답(東坡問答)」의 마지막 대목이다.16) 필사자가 김시화와 교분이 있었다면 이 작품을 1825년 전후로 열람했을 수 있고, 또는 그 문집 『죽하집(竹下集)』이 간행된 1853년 이후에 보았을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기사주』는 19세기 문인이 17~18세기 무렵 간행된 중국본 『사기』 이면지에 여러 문헌들을 잡박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기사주』의 내용과 문헌적 가치

1. 『기사주』의 내용

본 절에서는 『기사주』에 수록된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하여 책의 구성과

14) 또한, 『기사주』의 뒷부분에는 현전하는 오광운의 문집인 『약산만고(藥山漫稿)』에 수록되지 않은 「오약산제이문형덕수문(吳藥山祭李文衡德壽文)」이 실려 있기도 하다.

15) 『취송시집(醉松詩集)』은 끝내 간행되지 못한바 현재 그 시고(詩稿)만 16종이 확인된다(이영순, 「취송 이희사의 한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3, 18~19면).

16) 김시화는 원중거(元重擧, 1719~1790)의 제자인데 글재주가 빼어났으나 무반 집안 출신으로서 1795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문학에 대한 애호와 그 문재(文才)에 대한 자의식을 평생 간직하였다. 「동파문답」에는 그러한 면이 잘 드러난다. 김시화와 「동파문답」에 대해서는 박혜원, 「『郄睡謾錄』 硏究」(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8) 25~33면 참조.

수록작의 전반적 특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필자가 확인한바『기사주』에 기록된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기사주』의 구성>

면수	내용
표지 뒷면	동방역대연수
1~28면	중국 문인들의 사(詞)
29~33면	『강한집(江漢集)』 소재 기록
34~118면	생활・양생 관련 잡다한 정보
119~129면	서목(書目) 및 과거시험에 대한 글
130~142면	신광수,「관서악부(關西樂府)」
143~148면	박지원,「호질(虎叱)」
149~150면	김시화,「상토북천조(相土北遷詔)」
151~152면	조갑빈,「걸사산감역표(乞四山監役表)」
153~167면	미상,「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
168면	미상,「책이(責耳)」
169~171면	문방구에 대한 글
172~174면	장자주석제가(莊子註釋諸家) 및 기타 서목
175~176면	야사류
177~185면	제사의 예법
186~191면	별자리・역대 왕조 인구 수・법률・효자, 충신, 열녀 목록
192면	「오약산제이문형덕수문(吳藥山祭李文衡德壽文)」
193~194면	양원상(楊元祥),「교인부(郊禋賦)」
194~끝	서목과 그 독서 횟수・주역 괘

위의 <표 1>을 보면, 이 책은 일정한 체계가 없고 여러 기록이 뒤섞여 있지만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각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아래에서 살피도록 한다.

① 중국의 사(詞)

첫 부분은 중국 문인들의 사(詞)를 기록한 것이다.[17] 총 28면에 걸쳐 중

17)『기사주』에서 필사가 이루어진 첫 면은 앞 장에서 서술했듯이 "동방역대연수"라 하여 단군으로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 역대 왕조가 세워진 시기와 지속된 기간을 짤막하게 기록한

국 문인의 사(詞)가 적혀 있는데, 제2장에서 서술했듯이 “소동파문집 등록”이라는 기록과는 달리 필사된 작품들은 비단 소동파의 글 뿐 아니라 육유(陸游)・장선(張先)・화응(和凝)・진소유(秦少游)・이백(李白)・구양수(歐陽脩)・이욱(李煜)・유영(柳永) 등 다양한 문인의 저작이다. 제목 아래 작가를 적고 그 왼쪽으로 시를 적은 형태인데, 이 부분의 마지막에 실린 「조미시」(嘲美詩)는 작가도 적혀 있지 않고 현재 누구의 작인지 확인할 수 없다.

② 『강한집』 소재 기록

두 번째 부분은 총 5면에 걸쳐 실린 황경원의 『강한집』 소재 글이다. 총 네 편의 글, 즉 『강한집』 권 24 「준수석명제(準奏錫命制)」, 권 23 「정난조(靖難詔)」, 권 23 「유조(遺詔)」, 권 25 「휼형칙(恤刑勅)」의 일부를 필사하였다. 마지막 작품을 제외하면 제목이 없는데, 마지막 글은 제목을 “명태조칠일장변(明太祖七日葬辨)”이라 하여 『강한집』과는 다른 제목을 붙였다.

③ 생활・양생 관련 잡다한 정보

세 번째 부분은 약 95면에 걸쳐 실린 잡다하게 생활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 뒷부분에는 주로 양생(養生)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4행 정도의 짤막한 글에서부터 두 면 이상의 비교적 긴 글까지 있으며 각 글마다 거의 제목이 붙어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앞부분은 한문 문법에 관한 것(‘起語虛字’), 유자(儒者)와 불자(佛者)를 변별한 글들(‘儒釋辨’・‘惜字’・‘敬字’・‘字是至寶’), 오곡의 중요성(‘敬惜五穀’・‘抛棄五穀’), 사람한테 선물을 보낼 때의 예절(‘送人禮物要得實惠’), 말의 예절(‘寡言之妙’・‘妄言妄聽’)과 같이 교훈적인 내용을 다룬 것도 있고, 횃불이나 우산을 갖출 것(‘備火把’・‘備雨傘木套’), 밤길을 다니는 법(‘夜晚莫走避巷’), 촌수 계산법과 같은 일상의 실용적 정보가 있다.

뒷부분에는 양생(養生)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음덕(陰德)이 수명을 연장한다는 내용(‘陰德能延壽’),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警心’), 수양하는

것인데, 내용과 필체로 미루어보아 책의 뒷부분까지 모두 쓴 뒤에 앞부분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www.kci.go.kr

비법(修養秘論)에서부터 양생에 좋은 차와 탕약에 대한 기록이 포괄되어 있다. '경심'은 그 출전이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이며 '수양비법'의 출전은『운급칠첨(雲笈七籤)』으로서 필사자가 도가서를 두루 탐독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후술하겠으나 이 기록 중간에 "일개심쾌초록(一開心快抄錄)"이라는 제목 하에 소설어록해(小說語錄解)를 일부 기록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 정보 뒤에는 7면에 걸쳐 경사자집(經史子集)으로 나누어 책 제목을 적고 그 아래 시대와 작가를 명기한 다음에 '잡저(雜著)'와 소설(小說)을 나누어 책 제목을 썼다. 그 뒤에는 과거 제도에 대한 글이 3면에 걸쳐 적혀 있다.

④ 조선 문인의 신기(新奇)한 산문

네 번째 부분은 조선 문인의 산문을 필사한 것이다. 제목을 명기하고 그 아래 작가 정보를 적었는데, 작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130면에는 「관서악부 백팔수(關西樂府 百八首)」라는 제목 아래 "신석북광수 저(申石北光洙著)"라고 하여 작가를 밝혀 두었고, 12면에 걸쳐 「관서악부」 전문을 필사하였다. 중간 중간에 조그만 글씨로 장소에 대해 설명하거나 어떤 글자를 왜 썼는지 간략하게 설명한 주가 달려 있는데 필사자가 단 것은 아니다.[18]

143면부터는 6면에 걸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호질」이 필사되어 있다. 「호질」이라는 제목 아래 '박연암 지원이 열하로 갈 적에 옥전현(玉田縣)의 가게 벽에 실린 글을 필사한 것'[19]이라는 주가 달려 있고, 「호질」 전문이 실려 있다. 「호질」이 끝난 뒤에는 「호질후지(虎叱後識)」에 해당하는 내용 중 세 줄만 필사했으며 원작에서 문제의식이 드러난 어구도 산삭되었다.[20]

---

18) 이 주들은 조선후기 유통된 다른 전사본들, 예컨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관서악부』나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관서악부』에 적힌 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후기『관서악부』에 적힌 주와 평어에 대해서는 이은주, 「신광수『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174~176면 참조).

19) "朴燕巖趾源『熱河日記』, 玉田縣鋪中壁上所騰. 此無姓名, 篇亦無題, 就篇中二字爲目云."

20) 해당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燕岩氏曰: '篇雖無作者姓名, 而盖近世華人悲憤之作也. 世運入於長夜, 而禍甚於猛獸, 士之無恥者, 綴拾章句, 以狐媚當世, 豈非發塚之儒, 而豺狼之所

149면에는 2면에 걸쳐 「상토북천조(相土北遷詔)」가 실려 있는데, 제목 아래 김시화의 이름이 적혀 있다. 151면에는 2면에 걸쳐 「걸사산감역표(乞四山監役表)」를 실었는데, 제목 아래 "조갑빈이 이창원의 대작(代作)을 조롱하다"[趙甲彬嘲李昌元代作] 라고 적혀 있다.

153면부터 14면에 걸쳐서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가 실려 있다. 「동국명산동천주해기서(東國名山洞天註解記序)」가 먼저 제시되고, 그 본문이 일부 필사된 뒤 「제명산대천지해후(題名山洞天誌解後)」와 「명산동천지후서(名山洞天誌後序)」가 차례로 실려 있다.

168면에는 「책이(責耳)」라는, 작가 미상의 글이 한 면에 미처 다 끝내지 못한 채 실려 있다. 북풍(北風)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귀에 문제가 생겨니 주인(主人), 즉 마음이 귀를 책망하자 귀가 치아를 책망하고, 다시 치아가 기(氣)를 책망하자 주인이 뉘우쳤다는 작품인데 의성어를 과장적으로 쓴 점이 특이하다.

이상 조선 문인의 산문은 신기하고 해학적인 글을 중심으로 필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⑤ 역사·제사·법률 관련 잡다한 정보

조선 문인의 글을 필사한 이후로는 다시 ③과 같이 잡다한 정보가 적혀 있다. 단, 생활 상식이나 양생법이 아니라 주로 역사나 제사, 법률을 다룬 정보가 위주가 된다. 169면부터는 3면에 걸쳐 문방구에 대한 글이 실려 있고, 172면부터는 「장자주석제가(莊子注釋諸家)」라 하여 문인의 이름을 적고 그 아래 시대나 자호(字號), 다른 저서 등을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두 면

不食者乎? 余讀其文, 言多悖理, 與「胠篋」「盜跖」同旨, **然以寓微意.**'" 『記事珠』 148면. (강조는 인용자) 이 인용문에서 강조한 '禍'는 원작에서 '夷狄之禍'라 하여 청나라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기사주』에는 이 대목을 삭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인용문에서 강조한 '然以寓微意'는 원작에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구절인데 필사자가 추가한 것이다. 「호질」의 원작에는 기실 이 대목부터 '그러나 온 천하에 뜻있는 선비가 하루라도 중국을 잊을 수 있겠는가'[然天下有志之士, 豈可一日而忘中國哉]라며 청(淸)이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길게 서술하고 있다. 「호질」 원작의 원문은 朴趾源, 『燕巖集』 12, 『熱河日記』 「關內程史」 197면 참조.

21) 신광수의 「관서악부」는 유희적 성격이 강하며, 「동국명산동천주해기」 역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표방한 흥미로운 글이다. 「호질」이나 김시화의 「상토북천조」, 「걸사산감역표」는 모두 풍자적 요소를 가한 해학적 글이며, 「책이」 역시 해학적이다.

www.kci.go.kr

에는 다시 서적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그 다음 175면부터는 두 면은 이귀(李貴)・최명길(崔鳴吉)・박지계(朴知誡)에 대한 일화, 조식(曹植)과 이정(李楨)이 하종악(河宗岳)의 옥사로 다툰 일화, 조용주(趙龍洲)가 상소하면서 도륭(屠隆)의『황정고(荒政考)』를 올린 일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다.

177면부터는 9면에 걸쳐 제사의 예법에 대해 여러 책을 인용하여 잡박하게 기록하였는데, 중간에 전대 문인들의 이름을 장수한 이에서부터 일찍 죽은 이까지 나열하고 그 연수를 표기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 뒤로는 한지(韓紙)를 덧대어 붙인 부분으로 이어지는데, 한지의 첫 면은 제2장에서 제시한 서책 목록이고, 그 뒤로 12면에 걸쳐 별자리・중국과 한국의 역대 왕조별 인구수・풍속・적법(賊法)・노비법 등 잡다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간에「오약산의 이덕수 제문(吳藥山祭李文衡德壽文)」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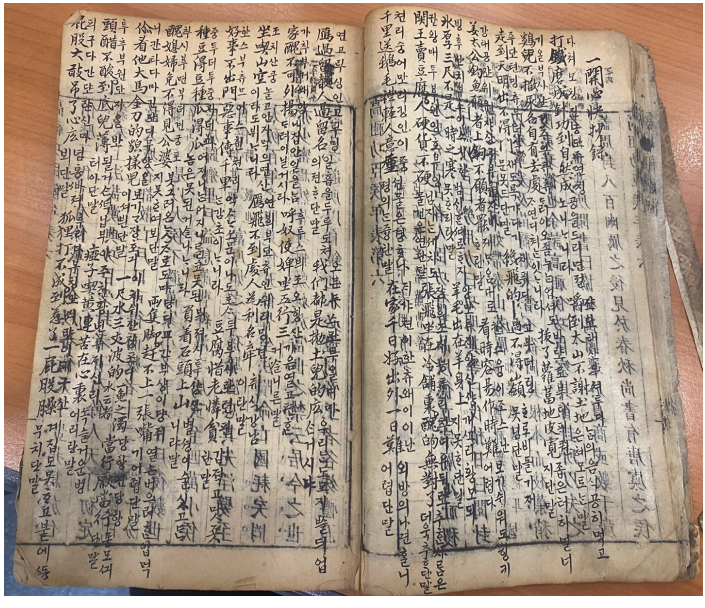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중국 명(明)나라 양원상(楊元祥)의「교인부(郊禋賦)」가 두 면에 걸쳐 실려 있고, 그 뒤로는 자신의 독서 계획이나 주역 괘나 절기(節氣)를 기록한 것으로 끝난다.

2. 문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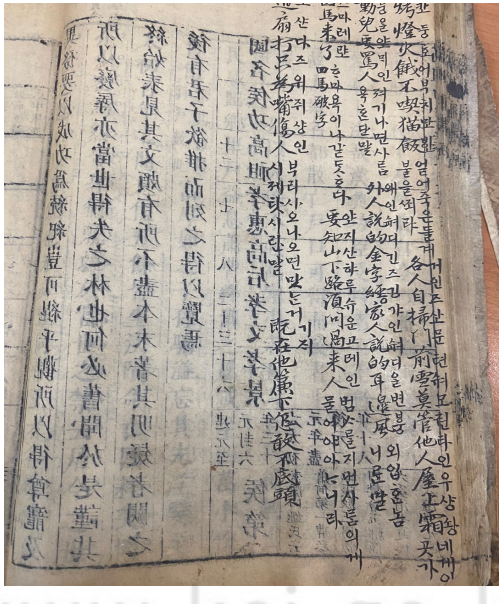
1) '소설어록해'의 새로운 전개 양상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기사주』의 문헌적 가치를 논하자면 특히 두 부분에서 그간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담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③과 ④ 부분에서다. ③ 부분은 다양한 생활 정보를 미시사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정보 및 필사자가 양생술에 관심을 두되 다양한 도가 문헌을 두루 참조한 사실을 제공하기도 하나, 무엇보다 소설어록해가 독특한 양상으로 기록된 점에서 가장 주목된다. 상술했듯이 ③에는「일개심쾌초록」이라고 하여 소설어록해가 일부 필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록 3면에 걸쳐 짧게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후기 소설어록해의 향유 양상을 확장적으로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그 전문은 아래의 <그림 5>와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 그림 5: 일개심쾌초록-1 >



< 그림 6: 일개심쾌초록-2 >

www.kci.go.kr

위의 그림들을 보면, '일개심쾌초록'은 소설어록해의 일반적인 형태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소설어록해가 단어와 구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구절만을 선별하였으며 '마음을 상쾌하게 여는 대목을 초록'했다는 제목 하에 교훈·풍자의 뜻을 담거나 재미난 표현을 모아서 초록한바 일정한 경향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소설어록해가 회목(回目)의 순서별로 백화 어휘나 구절을 제시하고 그 아래 해설과 해석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 달리,[22] '일개심쾌초록'은 원문 우측에 중국어 음가(音價)를 적어 마치『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나『역어유해(譯語類解)』와 같은 중국어 학습서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기실 18세기에도『역어유해』가운데 평소 즐겨 읽던 백화소설에서 본 표현을 확인하고 해당 대목을 간추려 정리한 사례가 발견되는데,[23] '일개심쾌초록'은 여기서 나아가 여러 백화소설 속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모아 재구성한 것이다.

더욱이 현전하는 소설어록해는『서유기(西遊記)』·『수호전(水滸傳)』·『서상기(西廂記)』를 중심으로 삼은 데 비해, 여기 실린 어록해는『금병매(金瓶梅)』를 다수 출전으로 삼으며, 총 100회 가운데 제1회부터 제81회를 두루 참조하여『금병매』를 애호한 정황이 파악된다.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여 '일개심쾌초록' 가운데『금병매』어록해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일개심쾌초록' 중『금병매』의 출처·원문·음가·번역의 예시>

출처	한문 원문	중국어 음가	한국어 번역
제1회	嚼倒泰山不謝土地	좌돠태산부셔투디	놈의음식공히먹고은혜모로는말
제51회	拔了蘿卜地皮寬	바뤄로부디피퀀	좁은터히널너지단말
제78회	關王賣豆腐，人硬貨不硬	관왕매투뿌인잉호부잉	님자는세차도물건은연탄말
제81회	呼奴使婢，坐五行三	후루스삐조오힝산	가음열고편홀거술니른말

한편, 여기 실린 구절들은『금병매』뿐 아니라『경화연(鏡花緣)』이나『수

22) 민관동,「≪水滸誌語錄≫과 ≪西遊記語錄≫ 硏究」,『중국소설논총』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115면.

23) 김하라,「18세기 지식인 유만주(兪晩柱)의『역어유해』읽기와 재구성」,『국문학연구』35, 국문학회, 2017, 322~324면.

www.kci.go.kr

당연의(隋唐演義)』, 『아녀영웅전(兒女英雄傳)』 같은 소설을 출전으로 삼고 있어 19세기 백화소설의 폭넓은 향유 양상을 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주』에서 서적 목록을 제시한 부분에서 소설 부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③ 부분의 마지막에 실린 소설류의 목록으로서 조선후기 소설을 애호한 경화세족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소설 독서 목록과 비슷한바[24] 필사자가 백화소설을 애호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 수호지(水滸志) 후수호지(後水滸志) 속수호지(續水滸志) 서유기(西遊記) 후서유기(後西遊記) 서상기(西廂記) 여선외사(女仙外史) 봉신연의(封神演義) 초한연의(楚漢演義) 삼국연의(三國演義) 평요전(平妖傳) 선진일사(禪眞逸史) 서양기(西洋記) 금고기관(今古奇觀) 설부(說郛) 패해(稗海) 박안경기(拍案驚奇) 열국지(列國志) 옥교리(玉嬌梨) 홍백화(紅白花) 평사낙안(平沙落雁) 농정쾌사(弄情快辭) 소양추사(昭陽醜史) 대업염사(大業艶史) 육포단(肉蒲團) 금병매(金瓶梅) 치파자(癡婆子) 추세명언(醜世名言) 각세명언(覺世名言) 정정기문(定鼎奇聞) 용도공안(龍圖公案) 구운몽(九雲夢) 남정기(南征記)

요컨대 『기사주』의 '일개심쾌초록'은 조선후기 소설의 열독 양상 및 소설 어록해 연구를 확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동국명산동천주해기』의 실상

내용 ④에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의 본문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동국명산동천주해기』는 남극관(南克寬)이 허균(許筠)의 저작으로 지목한바 주목할 만한 작품인데,[25] 『기사주』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그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서문과 후지만 장서각소장본 『와유록(臥遊錄)』에 전해 왔

24) 위의 서목은 조선후기 소설을 애호했던 경화세족 윤덕희(尹德熙, 1685~1766)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에서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박재연, 「윤덕희의 소설경람자」, 『문헌과 해석』 19, 2002; 이지영, 「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 『국문학연구』 21, 국문학회, 2010.

25) "許筠取道藏諸書, 蹈襲粧撰, 以成此書, 如高位杰乙支黯, 暗影東明文德, 而黯杰又梁四公之名也. 餘皆類此, 序跋並僞, 智光趙玄之輩烏有也." 南克寬, 『夢囈集』 乾, 「題東國名山洞天志」, 題東國名山洞天志」

www.kci.go.kr

고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그 서문과 후지를 통해 『동국명산동천주해기』라는 책이 전해진 내력과 그 내용을 파악할 뿐이었는데 『기사주』에는 약간이나마 그 실상을 볼 수 있으며 또 뒤에 「후서」가 하나 붙어 있어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간략하게나마 이 작품의 실상을 개관하고 그 의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서문과 후지에 실린바 『동국명산동천주해기』라는 책이 전해진 내력을 살피고, 그 본문의 형식과 내용을 짐작한 바 있다. 즉, '진실거사(眞實居士) 조현(趙玄)'[26]이 쓴 서문에 의하면 그가 반야봉(般若鋒)의 사찰에 갔는데, 운집한 승려들 사이에서 붉은 옷을 입은 천인(天人)이 나타나 그가 사실 죄를 지어 적강한 신선이라는 것, 동국(東國)은 신령한 땅으로 신선이 다스리는데 동국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신선진인의 자취를 알게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늘의 글이 적힌 책을 주며 묘향산 광제사(廣濟寺)의 지의(智顗) 현감노사(玄鑑老師)를 찾아가라고 한다. 조현은 광제사에서 남루한 차림의 지의를 만나고, 지의는 하늘의 글을 해석하여 선계(仙界)의 이름을 한문으로 남겨두고 떠난다. 그 뒤 조현은 18년에 걸쳐 지지(地誌)에 적힌 곳을 두루 섭렵한 뒤 세속의 이름으로 주해를 달아, 이를 4권으로 묶었다는 것이다. 한편, 「제명산대천지해후」는 지광(智光)이라는 승려의 글로서[27] 그가 조현의 내력을 설명하고 그에게서 『동방명산동천주해기』를 받은 것, 그리고 15년 후 그를 재회했는데 예전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적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상의 사항 및 도교의 '동천복지(洞天福地)' 즉 명산승지 속 선계(仙)에 관련한 서적의 형식을 참조하여 『동국명산동천주해기』의 실상이 아마도 조선 팔도에 산재한 명산동천을 각 처소에 따라 대별하고, 각 처소를 주관하는 진인선관의 명칭이 명기된 비교적 간단한 본문과, 그 본문 아래 본문의 명칭을 세속의 실제 지명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히

26) 남극관에 의하면 진실거사는 허균이 창작한 허구의 인물이다. 『와유록』이 "正德乙亥十月初一日"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기사주』에는 글의 말미에 "행국 우바새 진실거사 씀"[荇國優婆塞眞實居士著]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 '행국'은 행인국(荇人國)으로서 고구려 동명성왕(東明聖王) 6년에 정벌한 고대 국가 이름인데 영변(寧邊)의 별칭이다.

27) 남극관에 의하면, 지광 역시 허구의 인물이다.

www.kci.go.kr

부연한 조현의 주해가 병기된 형태일 것이라고 짐작한 바 있다.[28]

『기사주』에 기록된 『동방명산동천주해기』의 일부는 '동천지목록'으로 시작한다. 조선을 권역별로 몇으로 나누어 해당 권역에 존재하는 신선의 땅을 표기하고 그 아래 세속의 실제 지명을 주를 달아 표시한 글이다. 그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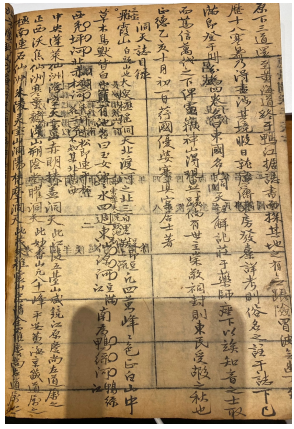
飛霞山. 白頭山也. 太煥極瑤洞天, 北渡河之北三百里. 疑卽豆滿上流. 凡四萬峰, 峰色正白, 山中草木鳥獸, 皆白, 山頂有池名曰玉女池, 池水四週, 東爲仙源河. 豆滿江. 南爲鴨綠河. 鴨綠江 西禿坪河北赤松河. 禿坪赤松, 卽速平松花二江, 不知某北某西.

中央蓬萊仙洲, 浮空天寶山, 赤明扶盖洞天. 此江陵五臺山, 咸鏡江原慶尙左道屬之.

正西沃焦仙州, 寒童龍寒童山, 朔陰堂曜洞天. 此妙香山, 凡八十一峰. 平安黃海京畿道屬之.

極南連石仙洲, 朱陵靈寶山, 洞陽梵摩洞天. 此茂朱雉裳山. 忠淸全羅慶尙右道屬之.

北方廣野山, 方壺開光洞天. 卽甲山吉州間, 蓋馬山也. 在北海之北仙漁淵之南.



< 그림 7:「동천지목록」>

위와 같이, 이 책은 도가적 공간 즉 '비하산'과 같은 공간을 크게 기록하고 그 아래 이 공간에 해당하는 조선의 지명 및 그 위치를 작은 글자로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도 제시된다. 예컨대 비하산 즉 백두산은 사만 봉으로 봉우리가 모두 백색이며 그 안에 사는 초목조수가 모두 흰 색이라는 사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이름은 '옥녀지'라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바 동천복지를 기록한 도가서의 형식을 참조한 것임이 확인된다.[29]

다만 새롭게 주목되는 점은 조선을 백두산부터 시작하여 중앙, 정서, 극남, 북방, 동방, 남방, 서방 등으로 지리적으로 나누어 이에 해당하는 동천

28) 정민, 앞의 논문, 40~43면.
29) 위의 논문, 64~65면.

www.kci.go.kr

지를 제시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동국의 지리와 산수를 도가적인 인식틀 아래 재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본문과 아울러 제시된 「명산동천지후서」에 이 점이 좀 더 자세히 드러난다. 「명산동천지후서」는 귀양 가던 도중 이 책을 얻어본 뒤 썼다는 '연섬자'(煉蟾子)라는 이의 글로서 역시 『기사주』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글의 서두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의 필법에 대해 칭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이어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가 마치 도교의 온갖 성지를 간 듯하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이 책의 명명을 통해 비로소 조선의 산과 골짝이 수천년간 받았던 부끄러움이 일거에 씻겼다고 하는데, 이 대목은 특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즉, 동국의 산수는 지극히 맑고 웅대하여 형산(衡山)·화산(華山)·태산(泰山)·곽산(霍山)에 비견할 만한데 '비로(毘盧)'나 '반야(般若)'로 부르거나 조계(曺溪)·시왕(十王)·세존(世尊)·법왕(法王) 와 같이 불러와 산수가 더러움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시(詩)에 들어가면 아취(雅趣)가 없었으나, 이 책에서 동천에 맞게 명명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것이다.[30]

한편, '동천지목록' 뒤에는 「봉래주소할명산동부대천(蓬萊洲所轄名山洞府大川)」과 '관북명산대천(關北名山大川)', '관남명산대천(關南名山大川)', '영동명산대천(嶺東名山大川)', '영서명산대천(嶺西名山大川)'이 제시되고, 「옥초주소할명산대천(沃焦洲所轄名山洞府大川)」, 「연석주소할명산동천대천(連石洲所轄名山洞府大川)」, '동부총내명산대천(東部統內名山大川)', '중부통내명산대천(中部統內名山大川)', '남부통내명산대천(南部統內名山大川)', '서부통내명산대천(西部統內名山大川)'의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어 해당 동천지에 어느 구역이 속한다는 정보와 그 지명의 유래나 옛 지명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어 지리지적 성격을 지니는바 조선후기 등장한 산지(山誌)가 다양한 양식과 교섭하되 도가적인 관점에서 저술된 한 양상을 보여준다.[31]

---

30) "吾東之山水, 素聞天下, 其淸峭靚深, 雄奇埈拔, 可班於衡華台霍而一任禪公納子之主之, 山之峰若洞, 非毘盧般若, 則不名之, 名非曺溪十王世尊法王, 則不稱號以呼之, 甚則俗名俚名, 聽之可嘔穢而入詩殊不雅, 豈非仙境之累, 靈神仙曺之羞辱, 而遊觀好事家之一大恨也耶. 今覩此書, 則其命名揭號, 率皆淸新飄灑, 呼之躍然以喜, 數千年含垢帶恥之峰壑, 得此而一洗之."

31) 조선후기 산지에 대한 연구는 유정열, 「묘향산(妙香山) 산지(山誌)의 특성과 의의」, 『한국

이상 개관한바 『동국명산동천주해기』는, 자국산수에 대한 자부를 바탕으로 도가적인 인식틀 속에서 조선의 지리를 재편하는 한편 그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지리지적 요소를 가졌음이 확인되는데, 추후 좀더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 본고는 백영본 『기사주』의 서지사항과 구성, 수록작의 경향 및 자료적 가치를 논하였다. 이 책은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중국의 사(詞) ② 『강한집』 소재 기록 ③ 생활・양생 관련 잡다한 정보 ④ 조선 문인의 신기한 산문 ⑤ 역사・제사・법률 관련 잡다한 정보. 이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③과 ④ 부분이다.

③에는 '일개심쾌초록'이라는 제목 아래 소설어록해(小說語錄解)가 일부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소설어록해를 확장적으로 이해할 단서를 제공한다. 현전하는 소설어록해는 『서유기』・『수호전』・『서상기』를 중심으로 삼은 데 비해, 여기 실린 어록해는 주로 『금병매』를 출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중국어 음가(音價)가 한글로 병기되어 있어 소설어록해가 향유된 다채로운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④에는 『동국명산동천주해기(東國名山洞天註解記)』의 본문이 일부 기록되어 있다. 『동국명산동천주해기』는 그간 『와유록』에 그 서문이나 후지만 전한다고 알려져 있어 자료의 실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 본문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 이는 자국산수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도가적인 인식틀 속에서 조선의 지리를 재편하고자 한 지리지적(地理志的) 요소를 가진 글임이 확인되었다. 추후 『기사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학논집』 8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37~67면 참조.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姜必愼,『慕軒集』
南克寬,『夢囈集』
朴趾源,『熱河日記』
李德壽,『西堂先生集』
許筠,『惺所覆瓿藁』
黃景源,『江漢集』
미상, 백영본『紀事珠』

2. 논문
김하라,「18세기 지식인 유만주(兪晩柱)의『역어유해』읽기와 재구성」,『국문학연구』35, 국문학회, 2017, 322~324면.
민관동,「≪水滸誌語錄≫과 ≪西遊記語錄≫ 硏究」,『중국소설논총』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105~115면.
박재연,「윤덕희의 소설경람자」,『문헌과 해석』19, 2002, 207~216면.
유정열,「묘향산(妙香山) 산지(山誌)의 특성과 의의」,『한국학논집』8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37~67면.
이영순,「취송 이희사의 한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13, 18~19면.
이은주,「신광수『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 양상」,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0.
이종묵,「유산의 풍속과 유기류(遊記類)의 전통 - 장서각본(藏書閣本)『와유록(臥遊錄)』과 규장각본(奎章閣本)『와유록(臥遊錄)』을 중심으로」,『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385~407면.
이지영,「18세기 경화사족의 소설 향유」,『국문학연구』21, 국문학회, 2010, 67~95면.
장종미,「徐瀅修의『碧紺珠』에 대한 서지적 연구」,『한국한문학연구』78, 한국한문학회, 2020, 263~296면.
정민,「許筠의『東國名山洞天註解記』와 도교문화사적 의미」,『도교문화연구』14, 한국도교문화학회, 2000, 37~70면.

www.kci.go.kr

Kisaju from Paek-yŏng Collection
-The New Aspect of Glossaries for novels and *Dongguk Myeongsan Dongcheonjuhaegi*-

Chung, Solmi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ontents of *Kisaju* from Paek-yŏng collection along with its literary value. *Kisaju* is a Sino-Korean book written by a 19th-century scholar with diverse interests, in which he compiled and transcribed various literary works, excerpts, and information, based on extensive references to valuable literary sources.

The book can be divided into five main parts: ① Chinese poems (詞) ② Records from *Kanghanjib* ③ Miscellaneous information on daily life and *yangsheng* ④ Unconventional records from Joseon dynasty ⑤ Miscellaneous information related to history, rituals, and laws. Among these parts, particular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sections ③ and ④.

Section ③ includes a partial transcription of the "Ilgaesimkwaechockorok", which provides clues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ater period's glossaries for novels. Unlike the other records in later Joseon period which mainly focus on *Xi You Ji, Shuihu zhuan, and Xi xiang ji*, "Ilgaesimkwaechockorok" primarily deals with *Jin Ping Mei* (金瓶梅). Furthermore, unlike other transcribed fiction records, the Chinese pronunciation is provided alongside the Korean translation, allowing us to observe the diverse aspects of glossaries for novels.

In section ④, parts of the main text of *Dongguk Myeongsan Dongcheonjuhaegi* (東國名山洞天註解記) are recorded. *Dongguk Myeongsan Dongcheonjuhaegi* has been known only to have its preface and postscript included in *Wayurok* (臥遊錄). However, through this book, we can partially examine the text and ascertain that it aimed to reorganize the geography of Joseon within the framework of Taoistic thought, based on the pride in nature of Joseon. Various research outcomes are expected in the future utilizing *Gisaju*.

www.kci.go.kr

Keywords: *Kisaju* from Paek-yŏng Collection, Glossaries for Novels, *Jin Ping Mei*, Dongguk Myeongsan Dongcheonjuhaegi, Taoistic Writing

접수일자: 2023. 3. 31.
심사기간: 2023. 4. 1.~2023. 5. 10.
게재결정: 2023. 5. 10.

www.kci.go.kr

www.kci.go.kr